

기사입력: 03.04.10 16:13

인쇄하기

한·미·일 현대미술 작가전...10일부터 DC 문화홍보원서



한·미·일 현대미술 작가 4명의 작품 전시회가 워싱턴에서 열린다.

DC 주미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원장 남진수)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계 인사들의 교류 촉진을 위해 ‘바람직한 동화: 환상과 실재 사이’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엔 한국의 천민정·이혜림, 미국의 길버트 트렌트, 일본의 사토미 시라이 등이 참가한다. 메릴랜드 미대 교수로 재직중인 뉴미디어 작가 천민정씨는 1970년대 한국에서 유행했던 종이 인형을 디지털 작업으로 재현한 그림들을 전시한다. 서양에서 유행했던 화려한 빅토리아풍 드레스를 입은 종이 인형 그림들을 통해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장난감에 깊이 스며든 서구 문화의 실태를 드러낸다.



서울과 뉴욕,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는 멀티미디어 작가 이혜림은 토끼란 이름의 여자 사이보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3차원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선보인다. 어린 소녀의 얼굴에 풍만한 육체를 가진 여자 사이보그의 모습을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보편적인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비판한다.

길버트 트렌트는 불교의 인간 존재론에 깊은 영감을 받은 미국인 작가로 어린 시절 불안정했던 자신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종이 인형 작품을 전시한다. 옷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흑인 어린이 모습의 종이 인형을 통해 인종과 피부색이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인 작가 사토미 시라이는 도쿄와 뉴욕에서 살면서 경험한 상이한 문화 체험을 담은 사진들을 선보인다. 일본식 가구와 식기들이 서구식 주거 공간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사진을 통



한·미·일 현대미술 작가전이 10일부터 DC 문화홍보원에서 개최된다. 위부터 길버트 트렌트, 천민정, 이해림, 사토미 시라이의 작품이다.

해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모국인 일본을 향하고 있는 괴리 현상을 나타낸다.

오프닝 리셉션은 3월 10일(수) 오후 6시 문화홍보원에서 열린다. 개막 공연과 더불어 이해림 작가의 애니메이션 '래쉬(Lash)'가 상영되며, 천민정 작가의 2009년 신간 서적 '샤머니즘과 사이버 공간'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은 무료지만 사전예약을 해야한다. ▷예약: 202-939-5688 장소: 237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